

화순군,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사업 확대 추진 한다

양질의 산림 헬스 케어 서비스 위해 최근 25억 추가 확보
수만리 일대 자연 친화적 목재 소재 연면적 1587㎡ 건립

화순군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예산(국비 25억)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산림청에 제안하며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산림복지 거점 공간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의 제안에 산림청은 올해 국비 50억 원을

지원, 실시설계 등을 진행했다.
군은 그동안 시설·기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에 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구충곤 군수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사업 확대와 국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군은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야 시설의 규모화·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산림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최근 2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화순읍 수만리 일대에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한다. 자연 친화적인 목재를 소재로 연면적 158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방침이다.
군은 주변의 산림치유·휴양·관광, 의료 인프라(의료관광),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를 새로운 산림복지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호순=박순철기자**



화순-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조감도

전남도, 코로나19 선별검사 업그레이드 '찾아가는 버스'



증상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
검사 간편·접근성 향상 충족한 방역

전남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를 운영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목포와 순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파급력이 큰 물류센터나 대형마트,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교대 근무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를 마련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별진료소와 동일하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검사가 간편해지고 접근성도 향상돼 감염자를 더욱 촘촘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8일 광양을 시작으로 2주 간 본격 운영에 효과가 나타나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최근 2건의 양성 환자를 찾아냈다"며 "대중교통 종사자와 물류센터, 대형마트 근무자 등 감염의 우려가 높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도민들은 이번 이동 버스를 이용한 선제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수능 실재점 분석

전남대 의예과 402점
조선대 의예과 397점

광주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수능)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의예과는 402점, 조선대 의예과는 397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광주 지역 고등학교 2021학년도 수능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131점, 수학(가) 130점, 수학(나) 131점, 사회탐구는 과목에 따라 63-67점, 과학탐구는 과목에 따라 62-68점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88점, 수학(가) 92점, 수학(나) 92점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402점 이상, 자연계열 392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3점 안팎, 자연계열 387점 안팎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6점, 국어교육과 364점, 행정학과 362점, 경영학부 358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37점 안팎으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02점, 치의학과 395점, 수의예과 386점, 전기공학과 373점, 수학교육과 357점, 간호학과 349점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37점, 국어교육과 332점, 경찰행정학과 330점, 경영학부 293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75점 안팎으로 판단했다. **조인호기자**

전남대병원서 의료진 3명 또 코로나 감염...긴급 위험도 검사

재활의학과 전공의·인턴 확진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 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9면>**
2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광주

1049번의 밀접촉자 3명과 광산구 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광주1050번~1053번으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1049번과 광주1050번은 가족이며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와 인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1049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밀접촉자 2명도 나주지역 한 병원의사(광주1052번)와 전남대병원 동료(광주1053번)로 확인됐다. 광주1051번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광산구의 한 교회 관련이며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 3명이

있따라 감염됨에 따라 긴급 위험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남대병원 신규 감염자가 기존의 병원내 확진자와 접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달 의료진 1명이 감염된 이후 환자와 보호자 등 100여명이 추가감염돼 동일집단 격리 조치됐으며 응급실과 수술실, 외래진료 등이 중단됐다. **김미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